

# 소니코리아

## 세계 최초 5축 손떨림 보정 풀프레임 미러리스 A7기 공개

소니코리아(대표 사카이 켄지, [www.sony.co.kr](http://www.sony.co.kr))가 35mm 풀프레임 카메라 중 세계 최초로 5축 손떨림 보정 기능을 탑재한 새로운 플래그십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A7기'를 공개했다.



A7기는 지난 해 세계 최초로 35mm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를 탑재해 카메라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렌즈교환식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A7 시리즈의 신제품으로,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렌즈교환식 풀프레임 카메라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국내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 50% 이상의 점유율로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니코리아는 2013년 11월 A7과 A7R, 2014년 5월 A7S에 이어 2014년 12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A7 시리즈의 신제품 A7기를 국내 시장에 선보이며 시장 선두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렌즈교환식 카메라 시장 전체를 선도할 예정이다.

A7기는 2,430만 화소의 35mm 풀프레임 엑스모어(Exmor) CMOS 센서를 장착해 극강의 해상도와 선명도를 제공하며 디테일이 풍부한 풀 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신형 이미지 프로세서 비온즈 엑스(BIONZ X)를 탑재해 빛이 분산되는 회절현상을 최소화하고 최대 감도 범위 ISO 25600에서도



완벽에 가까운 저노이즈 이미지를 보장한다.

특히 A7기는 35mm 풀프레임 카메라 중 세계 최초로 5축 손떨림 보정 기능을 탑재했다. 5축 손떨림 보정 기능은 카메라를 상하좌우로 움직일 때 나타나는 손떨림은 물론, 수평 회전 또는 상하좌우 회전 등 사진과 영상 촬영 시 5개의 축을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손떨림을 감지해 모두 보정해준다. 이를 통해 극한 조건의 촬영 환경과 느린 셔터 스피드에서도 높은 ISO와 삼각대 없이 흔들림 없는 안정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5축 손떨림 보정 기능은 소니 미러리스 E마운트 렌즈는 물론, 어댑터를 사용 시 소니 A마운트 렌즈 및 일부 서드 파티 렌즈 에도 작동한다.

A7기는 거리를 분석하는 117 포인트의 위상차 검출 AF와 절대적인 정밀성을 자랑하는 25 포인트 콘트라스트 검출 AF를 결합해 강력한 고속 듀얼 AF를 제공한다. 특히 첨단 알고리즘을 통해 피사체의 위치를 감지함으로써 전작인 A7 대비 30% 더 빨라진 반응 속도와 피사체의 다음 동작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1.5배 강화된 동체 추적 기능으로 운동선수나 야생동물과 같이 빠른 움직임도 흔들림 없이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다.

또한 A7기는 소니만의 전문 동영상 촬영 기술을 집약시켜 고품질의 풀 HD 영상(1920x1080, 60p/60i/24p) 촬영 능력을 선보인다. 35mm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 전체를 활용해 모든 프레임에서 안정적이고 디테일이 풍부한 영상을 만든다. 또한 영상 전문가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 새로운 XAVC S 비디오 포맷을 지원하여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가 만들어 낸 높은 화질의 결과물을 그대로 담아준다.

이 밖에도 A7기는 와이파이(Wi-Fi)와 원터치 공유(NFC) 기능을 탑재해 이미지 및 영상 활용도를 높인 것은 물론 최고의 해상도와 콘트라스트, 정교함을 자랑하는 236만 화소의 XGA OLED 트루 파인더를 탑재하고, 마그네슘 합금의 단단하고 가벼운 방진 방적 설계의 바디(556g)와 강화된 마운트부, 기존 A7 대비 카메라 구동 시간 40% 단축하는 등 더욱 향상된 사용자 편의성을 지원한다.

# 삼양옵틱스

## 풀 프레임 어안 12mm 포토 및 씨네 렌즈 출시

국내 광학전문 기업인 (주)삼양옵틱스(대표이사 황충현)가 풀 프레임 센서 사이즈에 대응하는 수동 초점 어안 12mm F2.8 ED AS NCS Fish-eye 포토 렌즈 및 12mm T3.1 VDSLR ED AS NCS Fish-eye 씨네 렌즈를 공식 발표했다.

국내 광학전문 기업인 (주)삼양옵틱스(대표이사 황충현)가 풀 프레임 센서 사이즈에 대응하는 수동 초점 어안 12mm F2.8 ED AS NCS Fish-eye 포토 렌즈 및 12mm T3.1 VDSLR ED AS NCS Fish-eye 씨네 렌즈를 공식 발표했다.

포토 렌즈인 12mm F2.8 ED AS NCS Fish-eye는 풀 프레임 카메라에서 180도의 넓은 화각을 구현해 어안렌즈 특유의 왜곡을 드라마틱하게 선보인다. 광대한 풍경을 비롯해 피사체의 재미있고 색다른 모습을 담기에 안성맞춤인 렌즈다. 최소 렌즈 길이 70mm와 무게 500g 가량의 콤팩트한 사이즈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F2.8의 밝은 조리개 값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구현한다.

씨네 렌즈 12mm T3.1 VDSLR ED AS NCS Fish-eye 역시 넓은 화각과 콤팩트한 사이즈를 바탕으로 팔로우 포커스 시스템에 알맞게 포커스 기어링을 장착했으며 촬영시 조용하고 정밀한 조리개 조작을 위해 무단 조리개 기어링을 장착했다. 지난 8월에 발표한 삼양 50mm T1.5 씨네 렌즈를 포함한 8개의 기

존 삼양 VDSLR 렌즈와 포커스 및 조리개 기어링의 위치가 동일해 영상 촬영 중 빠르고 간편하게 렌즈를 교환 할 수 있다. 두 렌즈는 삼양옵틱스의 40년 이상 광학전문 연구를 바탕으로 8군 12매의 광학구조로 설계됐다. 빛의 난반사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저 분산렌즈(ED) 3매와 수차 보정을 극대화하는 글라스 비구면 렌즈(ASP) 2매를 사용해 최대 개방에서도 화면중심부터 주변부까지 최상의 화질과 콘트라스트를 구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독자적인 연구로 개발한 나노코팅 시스템(NCS) 역시 채용해 빛의 투과를 최적화하고 플레어와 고스트를 최소화해 뛰어난 이미지 퀄리티를 제공한다. 최소 촬영거리는 0.2m로 비교적 짧은 거리에 있는 피사체도 손쉽게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캐논, 니콘, 소니 $\infty$ , 소니E, 펜탁스, 후지필름X, 포서드, 마이크로 포서드, 캐논M 및 삼성NX 등 총 10개의 카메라 마운트를 출시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계획이다.

풀 프레임 어안으로 세상을 더욱 넓게 즐길 수 있는 삼양 12mm 포토 및 씨네 렌즈는 12월 초부터 전 세계에 판매되며, 국내에서는 포토렌즈 50만 원대, 씨네 렌즈 60만 원대로 출시될 예정이다. 국내 렌즈 구매문의는 삼양테크(02-2625-2252, <http://www.astrofocus.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렌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삼양옵틱스 홈페이지(<http://www.syopt.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삼양 12mm F2.8 포토 렌즈



삼양 12mm T3.1 씨네 렌즈